

보 도 자 료



*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
◆ 대외협력팀

팀장 이지영 / 담당 조운호

Tel : 032-770-8630, 8631

Fax : 032-770-8609

◆ 2015. 10. 27.(화) 배포

◆ 총 4 쪽 (본문 2쪽, 별첨 2쪽)

항우연-극지연 손잡고 극지 환경변화의 해답 찾는다

- 항우연-극지연, 극지 및 항공우주 연구 분야 업무협약 체결 -

-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조광래)과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(소장 김예동)가 극지역에서 수행 가능한 극지 및 항공우주 연구 분야의 상호 융합·협력을 위해 10월 26일(월)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- 전 세계 해양의 약 1/5을 차지하는 남극해는 태평양과 대서양 등 다른 대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과 기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양과 기후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곳이다. 하지만 두꺼운 얼음과 혹한 등 가혹한 기상 조건과 이에 따르는 비용으로 인해 연중 현장관측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. 이러한 기후적,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는 연구 방법이 '원격탐사*' 방법이다.

* 원격탐사 : 인공위성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로 지구규모의 환경 변화에 대해 원격지간 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실시간 관측하고 극지 등 특정 지역을 중장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.

□ 미래의 남극해 생태계 변동의 이해와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탐사는 미국항공우주국(NASA)나 유럽우주기구(ESA) 등 해외 선진국들의 주도로 수행되어 왔다. 하지만, 2013년 발사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5호(KOMPSAT-5)로 한국 주도의 극지 원격탐사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. KOMPSAT-5가 제공하는 고해상도 레이더영상은 극지 해빙을 이용한 지구온난화 연구에 큰 진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극지연구소는 2014년부터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남극해 환경변화 현상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학연간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인 ‘서남극해 원격탐사 연구 (Satellite Remote Sensing on the West Antarctic Ocean Research, STAR)’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한편, 이번 협력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북극해 탐사나 북극해 항로 개발 등 북극 연구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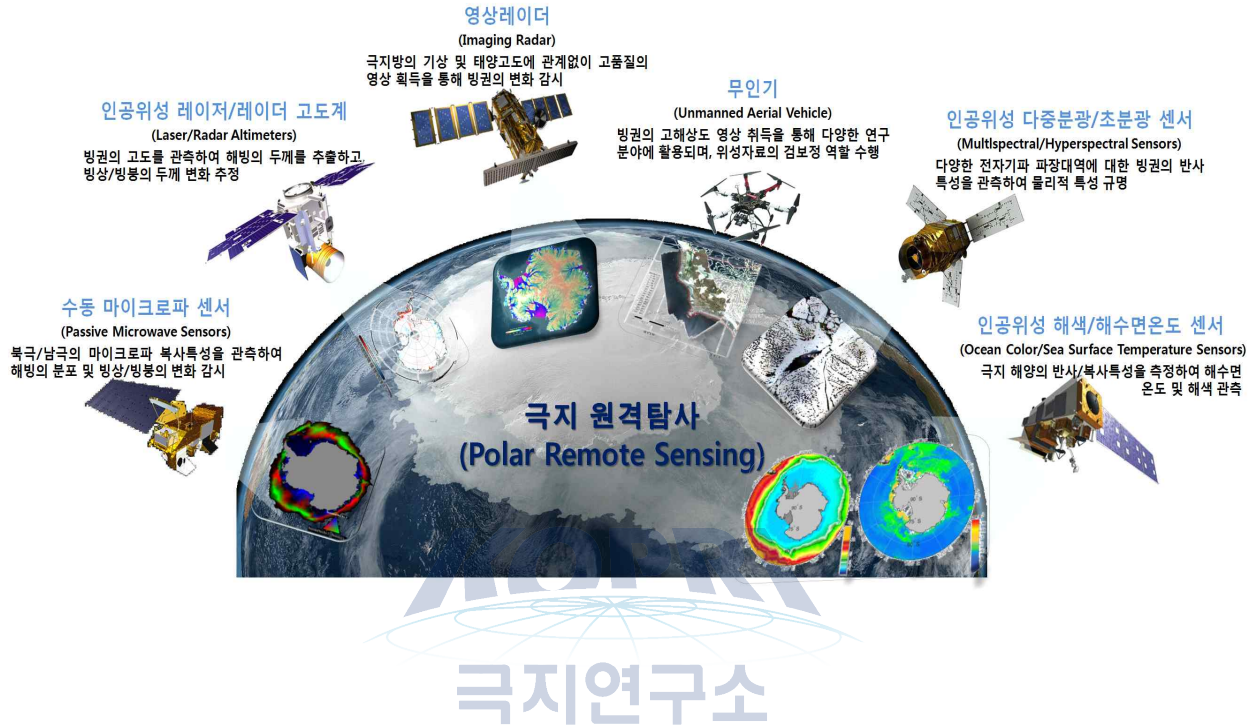
붙임 1.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지 원격탐사 및 ‘서남극해 원격탐사 연구’

붙임 2. 항우(연)-극지(연), 업무협약 체결 사진

극지의 한국,
미래의 도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 이지영(☎ 032-770-8630 / 010-3602-9305) 또는 조운호 담당(☎ 032-770-8631 / 010-4729-2406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인공위성을 이용한 극지 원격탐사 연구



■ ‘서남극해 원격탐사 연구’ 학연간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
(Satellite Remote Sensing on the West Antarctic Ocean Research, STAR)



극지연구소